중공, 穀物수출국으로 전환 될듯

지난해 기록적 풍작(8천7백50만톤)됐으나

中共은 수십년내 최악의 홍수에도 불구하고 올해 사상최초로 순곡물 수출국이 될것이라고 한정부소식통이 30일 말했다.

中共의 관영 영자신문인 차이나 데일리紙는 30일 中共은 지난 수년간의 기록적인 풍작으로 곡물을 비축했기 때문에 올해에는 수입량보다 많은곡물을 수출할 수 있게 됐다는 상무부 부부장 강습의 발언을 인용 이같이 보도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통계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그는 올여름의 곡물수확이 지난해의 기록적인 풍작에 버금가는 8천7백50만톤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中共의 총곡물생산은 지난해 기록적인 4억7백12만톤에 달했는데 이로써 中共은 올해 수출량을 전년대비 3배 약 5백만톤까지 확대할 수 있게 됐다.

北京주재 美외교분석가들에 따르면 中共의 옥수수는 美國의 독점아성인 日本시장에 침투했고 곡물은 홍콩 등 동남아시아까지 수출되고 있다. 中共은 또한 지난해에 원면의 수출국이 됐다.

한편 中共은 여전히 소맥의 주요한 수입국으로 호주로부터 80만톤을 구입했다. 이로써 금년도호주산곡물 구입량은 1백80만톤, 금액으로 2억4천만 달러에 달했다.

中共은 美國과의 곡물협정에 따른 83~84년도 구입약속분 4백20만톤을 구입하지 않았으나 금년의 1·4분기중 3천6백만 달러어치의 美國産 소맥을 구매했다.

中共의 하곡수확은 中共의 연간수확의 22%를 차지한다.

中共은 북동부 중공을 강타한 홍수로 인해 총3백 20만 에이커가 침수되어 금년도의 수확에 감산이 우려되나 다른 지역의 작황과 동계작물은 양호한 상태이다.

소맥은 아직도 주요 수입국